

가능성은 불안을 잠식하고 협의는 가능성을 배가 시킨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하거나 경우에 따라 강요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가능성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가능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으나 무엇보다 타인과 타집단과의 조화로운 대화를 들 수 있겠다. 사회가 요구하는 대화법은 시시각각 달라지게 마련이고 누구도 숙달되게 사용하긴 쉽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발생함은 분명하다. 미디어는 이를 가장 잘 해결해 주는 도구이고 학교도 그 몫을 다하고 있다.

지역 사회가 타 공동체, 더 나아가 세계와의 대화를 위해 시도한 것은 관대한 해석이다. 이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타집단에 적응키 위한 좋은 안내서이자 매뉴얼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적절한 대화법으로 자리한다. 지역 사회가 세계를 대할 때 우리는 기꺼이 새로운 대화법에 대해 학습해야 하지만 이때 우리 중 더러는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재빠르게 전환된다.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협의(타협)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논리로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소외될 지경이라면 사회적 협의(타협)를 발생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의를 거쳐 타국가, 타집단, 타인과의 대화가 가능해 진다면 우리는 행복해 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진정 믿고 있는 것인가?

사회에 적응치 못한 소외층들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이들은 동시대 사회의 대화법에 적응치 못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나의 작업은 이러한 어긋난 대화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불가능한 소통의 정체를 위해 사회적 해석을 재번역한다. 이러한 시도는 또 다른 대화법을 생성하기 때문에 더욱 오리무중에 빠지기 마련이며 더욱 더 소외되곤 한다. 나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원인을 알고자 할 의지도 없다. 이러한 소외 현상은 긍정적 가능성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답답함을 절실히 느낄 필요가 있으며 자신에 대해 더욱 집착해야 한다. 해석은 반복되고 재해석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생시킨다. 이 가능성은 또 다시 해석될 운명에 있으므로 편하고자 하는 자들은 타협할 것이다. 어찌면 이 타협이 현명한 가능성일 지 모른다는 긍정적 의심은 갖지 않는다.

2006년 김홍석

Possibilities eat up fear. Compromises doubles possibilities. Possib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irtues that the contemporary society offers, or sometimes even forces, us to recognize. The meaning of possibility is manifold. Yet, euphonious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other groups poses an important insight into understanding its meaning. Due to the ever-changing and unconsciously formulating nature of the communication practice, anyone can hardly attain mastery of it. Media is instrumental in shaping communication practice, while schools play a key role in promoting it.

Local communities practice tolerance in interpreting conversation with other communities and other world. Tolerant interpretation is a good guidance and manual to

follow in order to understand and accommodate oneself to others and other groups. It is accepted as a communication practice pertinent to the contemporary society. When a local community confronts outer world, we need to learn a new communication practice. In the process, some of us are rapidly converted to become alienated. This alienation can be overcome through compromise between individuals. By the same token, our society urges compromise on a social level when facing estrangement from other world. Now, are we convinced that compromise, which leads us to communicate with other countries, communities and individuals makes us happy? Do we really believe in this? One can discover that those who suffer from alienation tend not to comply with contemporary communication practice. My work can be found in failed communication and I re-translate(*or re-interpret*) the social interpretation in order to define the identity of impossible communication. My attempts often generate another kind of communication practice, which confuses initial intention and eventually causes further alienation. I am not willing to solve such confusion and alienation, nor do I desire to know the reason why this happened. Instead, I consider this new alienation as a positive possibility. We need to be aware of the suffocating nature of incapable communication and thus begin to learn to be tenacious about our communication. Interpretations are repeated and reinterpretations create new possibility. Since this possibility is destined for reinterpretation, those who wish to end the process will compromise. However, I do not hold positive suspicion that compromise is in fact a wise choice.

2006 GIMHONGSOK